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新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 역사사회언어학적 방법과 관련 사례를 통하여 —

양민호**

|| 目次 ||

1. 들어가며
2. 언어경관 연구
3.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
4. 언어경관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5. 나오며

1. 들어가며

언어경관 연구의 불모지였던 한국에서도 최근 몇 년간 사회언어학의 새로운 분야인 언어경관이 주목을 받기 시작하였다. 언어경관 연구는 주로 유럽에서 시작하여 동북아시아 쪽으로 이동해 오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최근에는 언어경관 연구 주제도 다양하게 바뀌어 가고 있다. 단순한 시각경관을 수집하고 분석했던 기존의 연구에서 벗어나 역사사회언어학적 연구방법을 활용한 주제의 독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본래 언어경관 연구는 인간의 삶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이와 같은 연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다루기 때문에 연구 주제와 결과를 직접적으로 각종 정책에도 반영시킬 수 있다.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S1A6A3A01079869).

**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 연구교수, 일본사회언어학, minhojinsei@gmail.com

나아가 더 나은 인간의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매우 시의적절한 연구라 볼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많은 언어경관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언어경관에 대한 개론적 설명도 부족하다. 또한 언어경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주는 연구 논문은 더욱 빈약한 상태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을 통하여 역사사회언어학(歷史社會言語學)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연구의 사례를 소개하고, 그것을 통해 언어경관에 대한 새로운 연구 프레임과 가능성에 대해 분류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언어경관 연구

언어경관 연구는 Landry and Bourhis(1997)에 의해 캐나다 중심으로 연구가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데 Ben-Rafael et al(2006)의 이스라엘, Huebner(2006)의 태국, Backhaus(2007)의 일본, Lanza and Woldemariam(2009) 이디오피아, 양민호(2013)의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서 언어경관 데이터를 수집하여 사회언어학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언어경관 연구는 언어와 사회의 관련성을 연결하는 척도로서, 현재 학제적 연구로서도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있다. 인접 학문과 연계하면서 언어학적으로는 언어접촉, 언어위신, 언어정책, 민족분쟁과 이민문제 등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정책과 관련된 분야와 새로운 지경을 넓혀가면서 언어경관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여기에 기존의 언어경관 연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발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주로 공시적으로 연구해왔던 언어경관 연구가 통시적으로도 분석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다름 아니라 역사사회언어학적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백 여 년 전 중국 상하이 도시 형성기의 언어경관에 대해 사진 데이터를 수집하여, 그것을 바탕으로 상하이에 대해 기술하고, 언어경관을 통해 게시물을 유형화함으로써 조계지(租界地)였던 상하이의 언어경관을 분석하게 된 것이다. 언어경관 분석뿐만 아니라 동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변인(變因)을 찾는 것에도 주목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경관 연

구의 스펙트럼은 갈수록 다양화되고 새로운 학문 분야를 개척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2.1. 언어경관 연구 구분

인간의 감각(感覺)은 주장하는 이에 따라 다양하게 갈리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감(五感)에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언어경관을 인간의 오감에 준하여 범위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좀 더 손쉽게 설명하면 오감 중에서 주로 시각, 청각, 촉각으로 구성된 언어경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YANG and KIM(2018)에서는 도시의 언어경관을 구성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크게 3개¹⁾로 나눌 수 있다.

위에서 언급한대로 대부분의 언어경관 연구의 장소는 주로 도시경관에 주목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도시는 언어경관 연구의 보고(寶庫)이며, 도시의 형성과 발전을 언어경관의 변이 형태로 살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유입에 따른 도시 언어경관의 변화 등과 같이 인구의 동향과 추이가 고스란히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어경관을 연구하는데 있어서 관점을 어디에 맞추느냐 따라 연구 방법은 크게 둘로 나뉜다. HULT(2009)에 의하면 언어경관 연구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병행하는 방법론을 추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실제로 양쪽 방법론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과거의 언어경관 사진은 그 당시 확실하게 존재했던 역사적 사실을 대변한다. 그 사진 한 장이 당시를 증명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자산인 것이다. 특히 상업시설의 간판, 도로표식, 각종 정치적, 종교적 게시물 등 언어경관 자료에는 다양한 요소가 포함되어 있으며, 게시물 속에는 중요한 단서가 존재한다. 이와 같은 요소가 언어경관에 담겨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사례를 들어 설명해보도록 하겠다.

1) YANG, KIM(2018)에서는 다음과 구분하고 있다.

시각경관 - 전단지, 간판, 공지, 안내표식 등
 음성경관 - 방송안내, 백화점 안내, 관광지 안내, 박물관 해설 등
 촉각경관 - 점자 상품, 보도(步道) 블록, 점자 리플릿, 명함 등

3.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

彭国躍(2018)에 따르면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연구는 다음과 같이 6가지 관점에서 살펴봐야한다고 언급하고 있다.

- | | | |
|----------|-----------------|---------|
| 1. 다언어사회 | 2. 언어위신(威信)과 규범 | 3. 언어변화 |
| 4. 산업형태 | 5. 건축양식 | 6. 시장경제 |

위와 같은 관점에서 彭国躍(2018)은 100년 전 상하이 언어경관에 반영된 말과 사회생활의 상호작용, 다양한 언어경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회적 관계요인이 동양과 서양의 만남, 접촉과 융합의 역사적 사실에 있다하고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전통적 언어경관은 점포의 형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개방형 점포(도로와 면해 있으면서 사람들의 이동이 자유로운 곳)와 폐쇄형 점포(높은 벽이 쳐져 있어 안의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 곳)로 구분하여 분석했다. 1845년 이후 가장 앞쪽에 위치한 황푸강 주위에는 주택, 공장, 오피스 호텔 등 서양의 시설들이 건설되었고, 이 시기에는 영어로 쓰인 점포들이 즐비하였다. 문자 배열 등을 참고하여 그 시대를 유추할 수 있었고 건물의 흥망성쇠(興亡盛衰)에 따른 그 도시의 역사적 사실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같이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분석은 다양한 관심으로부터 흥미로운 역사적 사실을 증명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3.1. 언어경관을 통해 살펴 본 언어 변화 추이

언어 공시태(共時態)는 어느 시대를 분석하더라도 시시각각 변화한다. 그렇지만 어느 한 지점의 중간을 잘라 분석하면 그 시대의 음운, 어휘, 문법, 담화 등의 언어적 요소의 변화를 찾아볼 수 있다. 이러한 공시적 연구의 연결이 통시적 연구가 된다. 특히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에서는 이점이 매우 중요하다. 100년 전 상하이와 50년 전 상하이 그리고 최근의 상하이의 잘린 단면을 살펴보는 것이지만 그것을 이어 붙이게 되면 상하이의 통시적 분석이 가능하게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일제강점기 일본어가 적힌 부산의 모습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3.2. 역사사회언어학적으로 살펴본 부산의 언어경관

3.2.1. 일제강점기 부산역의 언어경관

아래 <사진1>은 일제강점기의 부산역 모습이다. 건축 양식, 서민들 풍속 등 그 당시 중요한 단서들이 제공되고 있다. 다만 본 논문에서는 언어에 한정하여 살펴보기 위해 언어 표기가 있는 부분만을 발췌하여 설명하겠다.



<사진1> 부산역(1928~1934)

출전 : PNU아카이브 <http://bpa.localityarchives.org/items/show/3537>

<사진1>에서 보는 부산역은 1908년 6월에 착공하여 1910년 10월 31일에 준공한 건물로, 인근에 있는 부산세관 청사와 함께 부산의 대표적인 근대 건축물이다. 사진에서 보는 부산역은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로 소실되었다. 다만 이 사진에서는 1928년에 개관한 공회당이 보이며, 철도 호텔도 2층으로 증축되지 않은 것으로 보았을 때 1934년 이전에 촬영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주변에 전통적 가옥형태도 보이지 않고 적산(敵産) 가옥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산역과 호텔, 공회당 건물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가운데 언어 표기만을 설명하겠다.

우선 전신주 왼편에 있는 게시물은 부산경찰서에서 내 걸은 표식으로 ‘제차(諸車) 서행(徐行) 부산경찰서(釜山警察署)’라고 적혀있다. 모두 한자로 적혀 있으며, 문자 배열 방향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형태이다. 이를 통해 해방 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텔 오른편에 ‘자동차(自動車)’라고 적힌 간판 역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는 문자 배열 형태이고, 한글은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을 통해 일본의 통치가 심했을 때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부산역 건축과 동시에 오픈한 역전(驛前) ‘호텔(HOTEL)’은 호텔의 특수한 성격상 로마자로 적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그 왼편으로 살펴보면 ‘공회당(公會堂) 내실(內室) 입구(入口)’라고 희미하게 적혀 있는 것이 보인다. 사진 한 장으로 언어경관을 살펴보았지만 당시의 시대상과 일제강점기의 한글 사용 및 문장 배열 방향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른 곳의 언어경관에 대해서도 살펴보도록 하겠다.

3.2.2. 일제강점기 부산우편국의 언어경관

이 <사진2>를 보면 1910년 5월 25일 벽돌 2층 건물로 신축한 부산우편국의 모습이 보인다. 부산 3대 건축물의 하나였지만 이 역시 1953년 11월 27일 부산역전 대화재로 소실되었다. 부산우편국은 1876년 일본 제국 우편국 사무소의 후신으로 부산에 창립한 기관이며, 1905년 한일 통신 기관 합동 협정에 의하여 부산의 우편·전신 사업 관리를 일본이 장악하면서 부산우편국으로 개칭하였다. 그리고 조금 지난 1910년 3월 25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 3가에 새로 신축한 모습이며, 1950년 1월 12일 부산우체국으로 변경되었다.



<사진2> 부산우편국과 거리 모습 (1910~1953)

출전: PNU아카이브 <http://bpa.localityarchives.org/items/show/2945>

이 <사진2>에는 앞서 살펴본 <사진1>의 부산역 모습과는 다른 매우 다양한 언어 표기가 엮여있다. 정확한 촬영 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고 광범위한 시기만을 한정하였다. 그렇지만 언어경관 중 언어 표기를 분석해보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고 약 10여년이 지난 1920년의 모습이라고 얼추 판단할 수 있다.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은 언어경관 모습을 통해 설명할 수 있다. 위 <사진2>와 같이 부산역 근처에 소재한 부산우편국은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지역이다. 따라서 그 근처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기념품 가게가 즐비하게 늘어서 있다. 간판에서 보듯이 ‘조선 기념품(朝鮮 기념품(朝鮮各地名

産一切)’와 같이 전국 기념품을 함께 판매한다는 표시도 보인다.

여기에 등장한 언어 조합을 보더라도 한자, 일본어 히라가나가 등장하였고, 부산우편국은 한자 ‘釜山郵便局’과 영어 ‘FUZAN POST OFFICE’가 함께 병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담배를 가리키는 ‘たばこ’의 일본어 히라가나도 이미 간판에 표시되어 있다.

아래 <사진3>은 일본에서 사용하는 담배 표기 간판의 변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쇼와(昭和) 초기부터 사용한 담배 가게 간판을 보더라도 많은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사진2로 다시 돌아와 부산우편국에 사진 귀퉁이에 찍힌 사진에는 ‘たばこ’의 문자 배열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게 되어 있다. 이러한 표기는 1920년대 30년에 주로 사용했던 패턴이며, 해방 이후에 문자 배열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순서가 바뀌게 되었다. 향후 비슷한 패턴으로 일본에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다.



<사진3> ‘たばこ’ 간판의 변화 패턴

<사진2>에서 보이는 담배 표기 ‘たばこ’는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²⁾ 일본 본토에서 사용하는 패턴과 매우 흡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특정하기 어려웠던 이 사진의 시기는 일본의 문화 통치가 진행되던 때로 볼 수 있다.

이 <사진2>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언어경관의 모습이 있다. 그것은 ‘인방(印房)’이라고 적혀 있는 도장포의 간판이다. 붓글씨체로 ‘인방’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고, 그 한자 사이에 한글로 도장이라고 적혀 있다. 그렇게 본다면 적어도 한글이 금지되었던 민족 말살 통치 시기는 아니라고 판단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언어경관의 모습만을 가지고 민족 언어의 생명력이 살아

2) 일본 제국은 1910년에 한일강제합병을 하게 되며 기존의 조선총감부를 개편, 조선총독을 기반을 한 조선총독부를 조선 정치 권한의 중심으로 만들어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10~1919년은 무단통치 시기이며, 1919~1931년은 문화통치 시기, 마지막으로 1931~1945년은 민족 말살통치 시기로 구분하고 있다.

있던 시기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진2>를 제공하고 있는 PNU 아카이브 자료실에서는 정확한 기간을 설정하기 어려웠던 걸로 파악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긴 기간으로 표시하였다. 하지만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 부분만을 추출하여 분석한 결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웠던 시대의 폭을 좁혀 밝혀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 장의 도시경관 사진이지만 거기에 나타난 언어경관의 문자 요소만을 가지고 공식적 연구가 가능해졌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같은 지점의 여러 사진을 조합해보면 통시적으로 부산우편국이 신축된 1911년부터 화재로 소실된 1953년까지 부산의 한복판이 역동적인 모습으로 되살아 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옛 모습의 복원은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3.2.3. 해방 이후 부산 국제시장의 언어경관

다음에 제시하는 <사진4>는 부산 창선동 국제시장 부근의 사진이다.



<사진4> 창선동 국제시장 상가 안에서 구 동아극장 방향(1953. 06. 16)

출전: PNU아카이브 <http://bpa.localityarchives.org/items/show/2835>

일제강점기를 겪으며 온통 일본어 간판이 즐비했던 곳이 서서히 한글 혼용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예로부터 한자가 많았지만 한글이 병기가 된 간판이 해방 이전보다 많았고, 약국과 냉면이라고 쓰인 간판은 한글로만 적혀 있다. 그리고 한자 표기가 현재와 같은 문자 배열로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약국을 의미하는 십자가 픽토그램(Pictogram)이 등장한 것도 이 사진에서 보이는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를 통해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본 논문에서는 거의 언급하지 않았지만 언어경관 분석으로 전통적 점포에서 서비스 업종이 늘어나는 산업형태로의 변화도 알 수 있다. 또한 적산(敵産) 가옥에서 탈피하여 서양건축의 벽돌 건물, 그리고 전통적인 한옥 가옥으로 변화되는 건축 양식의 모습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井上(2009)는 언어에 가치와 지위가 부여된다고 보고 있으며, 상업시설의 언어경관에는 경제원리가 반영되기 쉬워서 간판내의 모든 언어의 순서에도 시장가치, 경제성이 부여된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을 앞서 설명한 일제강점기를 겪은 대한민국 부산의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분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나타났다고 설명할 수 있다.

4. 언어경관 연구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

앞선 3장에서는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연구 사례를 소개했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 상당 지면을 할애해 설명한 이유는 기존의 언어경관 연구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시도이기 때문이다.

사실 언어경관 연구에는 다양한 자료, 분석 대상 그리고 조사 방법 등이 존재한다. 하지만 언어경관 연구에 대해 전체적으로 패러다임을 분석하거나 제대로 설명된 연구 논문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따라서 앞서 설명한 역사사회언어학적 언어경관 연구 사례를 포함하여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연구되어 왔던 언어경관 조사를 진행할 때 다음과 같이 분석 대상, 방법, 매개체, 상황 등에 따라 분류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하고자 한다. 비록 자의적으로 새롭게 패러다임을 분류하였지만 이를 토대로 향

후 언어경관 연구가 나아갈 방향성에 힌트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우선 서론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언어경관 연구는 자료의 분석을 바탕으로 사회언어학 분야에서 이미 하나의 연구 영역을 만들어가고 있다. 그렇지만 연구 범위 및 대상 그리고 향후 연구주제와 방향성에 대해 언급된 연구가 부족하여 이 부분에 주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이번 4장의 기술(記述) 방식은 언어경관 연구의 패러다임을 간략하게 나누어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간략하게 덧붙이는 형태로 설명하였다.

■ 발신 주체

공적 주체: 국가기관, 지자체, 비영리재단

사적 주체: 개인

언어경관 연구는 발신자가 누구이며, 수신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공공성을 띠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는 주체가 공적(公的)이나 사적(私的)이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1대 1의 경우에는 공공언어 틀에서 다루는 언어경관 연구와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 있다. 1대 다수, 혹은 다수 대 다수, 다수 대 1의 패턴으로 구분해 생각할 수 있다. 좀 더 풀어 설명해보면 개인이 일반 대중에게 게시하는 것과 국가기관이나 지자체가 일반 대중에게 게시하는 것을 분석할 때는 이렇게 공적 주체가 내놓는 게시물을 분석할 것인지, 아니면 사적 주체가 게시하는 것을 분석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단순히 많은 게시물을 이러한 구분 없이 분석하기에는 언어경관 게시물에 대한 성격차이가 발생하여 바이어스가 생긴 분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언어경관 연구를 진행할 때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공적, 사적 게시물인가에 대해 구분하여 접근 하는 방식이 옳다.

■ 발신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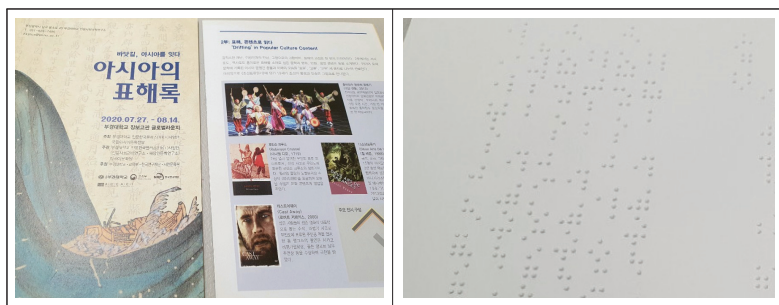
오프라인 : 시민이 오감(五感)을 통해 보고 느낄 수 있는 공간

온라인 : 공적, 사적 오프라인을 제외한 장면(누리집, 소셜미디어)

언어경관 연구를 위와 같이 오프라인과 온라인에 펼쳐진 공간을 중심

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이제까지 대부분 시각, 음성(청각), 촉각경관이 벌어지는 물리적 공간은 오프라인이 대부분이었고, 그것들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다.

다음에 제시한 <사진5>는 한 전시회 리플릿이다. 최근 오프라인 시각경관의 예에는 전시회 리플릿에 점자(點字)를 추가하여, 촉각경관을 겸하게 하는 점자 리플릿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있다.



<사진5> 점자안내 전시 리플릿

이와 같이 작성된 오프라인 속 촉각경관 사례는 오감을 동원한 언어경관 연구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궁극적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근 위드(with) 코로나, 포스트(post) 코로나를 대비하면서 많은 오프라인 언어경관 모습들이 언택트(untact) 시대에 걸맞게 흘러가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맞이하여 온라인 역시 언어경관 연구의 커다란 이슈 공간으로 부각되고 있다. 기존에 회사나 공공기관 건물에 붙였던 벽보들도 온라인상에 붙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누리집에 함께 설명되고 공지되는 경우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던 언어경관의 패러다임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공간의 다변화와 더불어 고민하며 연구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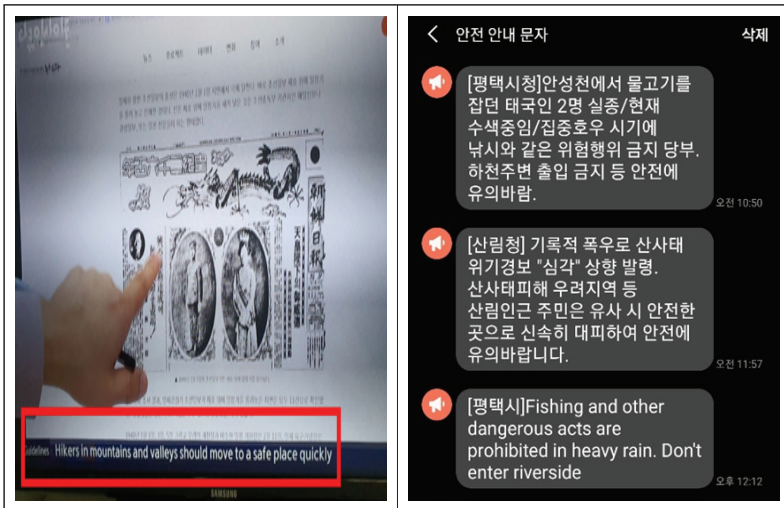
■ 상황별

평상시 :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모든 장면

비상시 : 생명과 관련된 중요 장면

<예> 코로나(COVID19), 전시(戰時), 재해, 재난

다음은 상황에 따라 언어경관 연구를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평상시에 주로 사용되는 언어 환경을 연구하는 것과 코로나(COVID19) 바이러스와 같이 세계적인 전염병 대유행(팬데믹 pandemic) 시기, 또는 여름철 수해, 겨울철 눈사태 등과 같이 긴급 상황에서 게시하는 것들의 차별성에 대해 분석할 수 있다. 특히 재난 시에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많은 게시물이 빠른 시간 쏟아져 나오기도 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발신된다. 예를 들어 <사진6>에 제시한 것처럼 TV의 자막이나 핸드폰 안전 안내 문자처럼 긴급 공지를 하는 경우가 많다.



<사진6> 수해 관련 영문 대피 메시지(TV, 핸드폰 화면 캡처)

<사진6>과 같이 최근 긴급 공지를 보면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 중국어로도 발신을 시작하였다. 이것이 새로운 패러다임이며, 변화된 언어경관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상시 또는 재해, 재난 시 많이 사용되는 언어의 프레임이 만들어질 것이다. 어찌되었건 평상시 모습도, 비상시 모습도 우리 삶속에 나타나는 언어경관이다. 언어경관은 우리의 삶과 매우 밀접한 연구임에 틀림없기 때문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적용하고 지속적으로 연구 대상이나 방법에 대하여 고민하며 분석할 필요가 있다.

■ 언어의식

언어의식 : 실제로 느끼는 의식 (의식조사)

언어행동 : 언어경관(간판, 게시 등)에 대하여 적극적 동참 여부

언어 게시물을 매개로 그것의 반응과 의식을 묻는 언어경관 조사가 있다. 예를 들어 주위환기 표시와 금지행위 경고문을 보았을 때 느끼는 감정과 그것에 대해 적극적으로 동참할지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언어경관 연구에는 이와 같이 사회언어학적 척도를 가지고 와서 언어경관에 대한 잠재적 의식에 대해 계층별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통해 이를 통해 언어경관에 대한 언어 의식과 행동의 괴리를 파악할 수 있어서, 실제로 언어경관 자료 분석뿐만 아니라 설문지를 통한 언어의식에 관한 연구가 가능하다.

■ 조사방법

전통적 조사법 : 사람의 손으로 촬영하고 녹음하던 방식

다각화된 조사법 : 4차 산업시대 방식, 역사사회언어학적 방식

언어경관 연구는 기존의 전통적인 조사방법을 점차 탈피하고 있다. 4차산업 시대를 맞이하면서 조사방법의 다양성과 방식의 선도성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Daum, NAVER와 같은 포털사이트 로드뷰를 활용할 수 있고 언어경관을 토대로 VR을 만들어 현장감 있는 공간 모습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련된 실제 공간과 가상의 공간에 대한 차이점 등을 분석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행연구로 보았을 때 어느 정도 효율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끝나 앞으로 더욱 더 다각적으로 언어경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3장에서 소개한 것처럼 시대를 거슬러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을 통시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 언어 이미지

플러스 이미지 :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한 긍정적 시그널

<예> 방언형 게시물

마이너스 이미지 : 발신자가 수신자를 향한 부정적 시그널

<예> 경고 및 금지에 관한 표식

언어경관에 대해 연구하다보면 게시물과 둘러싼 이미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 <사진7>과 같이 지역의 방언을 활용한 간판을 가끔 보게 된다. 이러한 간판은 그 지역 시민에게는 매우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온다. 특히 점포에 대한 이미지도 상승하면서, 손님 유치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사진7>의 방언형(표준형-어찌지?, 대구-우야지?, 부산-우짜지? / 표준형-먹어봤나?, 부산-무봤나?)을 간판에 사용하는 것은 언어의 정적(情的)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함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그 지역 안에서의 유대감을 통한 손님을 끌어 모으기 위한 언어경관의 기능이다.



<사진7> 부산 대연동 음식점 간판(방언형)

반면에 분명 마이너스 이미지 게시물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게시해야만 하는 게시물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침을 뱉지 마시오’, ‘흡연 금지’ 등과 같이 심적으로는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게시물이지만 언어경관 자료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게시 글을 적어 놓은 이유는 언어경관에 대한 마이너스 이미지

보다 반드시 금지시켜야 한다는 효과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언어경관 게시물에 대한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 이미지 연구는 고객 관심 유도, 이미지 상승, 하강, 적절한 정보 제공 여부, 손님 유치에 미치는 효과 등 새로운 언어경관 연구의 패러다임 안에서 다양하게 분석 가능하다.

■ 교육 활용

교육 : 교육현장에 접목 가능한 내용

생활 : 생활과 타 분야와의 접목가능성에 대한 고민

언어경관 연구는 외국어 교육에도 활용가능하다. 정형화되고 딱딱한 교재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친숙하게 보아왔던 언어경관 자료를 활용하여, 학습자의 외국어 해석능력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규격화된 활자 패턴에서 벗어나 다양한 폰트, 그림 등이 함께 존재하는 입체적 언어경관 자료들은 흥미를 유발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장면별 교재로도 활용 가능하므로, 긍정적 학습동기가 유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언어경관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통해 제2언어 습득을 위한 교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인위적인 자료가 아닌 실생활 현장 속에서 채록한 생생한 자료이기 때문에 제2언어 습득 중에서 태스크(Task) 연습 등 활용도가 매우 높다.

■ 다문화 사회

수요 : 외국인의 급증

공급 : 수신자의 수요에 맞춘 언어 표기

언어경관 자료를 살펴보면 최근에는 다언어 게시물이 상당히 증가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언어경관 표준모델³⁾에 근접한 형태이다. 다만 상업적 게시물은 공적 게시물과는 달리 간판에 수신자의 수요를 반영할 수

3) 양민호(2015)에서 언급한 것처럼 언어경관 모델을 구분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 표준모델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 밖의 모델은 존재할 수 있지만 결국 오리지널 모델의 변용 모델의 일부라고 볼 수 있다.

밖에 없다. <사진8>은 부산 서면의 골목 상가인데 한국어와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다. 이는 일본과 지리적으로 부산, 그 중에서 관광객이 많은 서면을 방문한 일본인 관광객을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사진8> 부산 서면 음식점 다언어 표기 간판 (일본어 병기)

마지막으로 지면 상 본 논문에서 다루지는 못하지만 도시 구조에 따른 언어경관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바다를 끼고 있는 어촌마을과 해안선을 벗어난 시내 중심지, 깊숙이 들어가 산을 끼고 사는 산촌에 나타나는 언어경관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이와 같이 언어경관 연구의 패러다임을 바꿔봄으로서 그 연구 범위와 활용 가능성 추후 인접 학문과의 협업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다.

5. 나오며

한국과 일본에서 언어경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기술된 선행연구는 많지 않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사례 연구를 소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언어경관 패러다임에 대하여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간단히 정리해 볼 수 있다.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의 부산과 해방 이후의 부산의 언어경관은 언어, 문자, 내용, 문자 배열 등에서 상상을 뛰어 넘는 다양성

을 지니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 속에 그 시대를 고스라니 담고 있었으며, 아픈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태까지 당시를 회상하는 것은 기억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역사사회언어학적으로 접근한 사진 한 장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포착되어 통시적(通時的)인 언어경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언어경관 연구를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 집어넣어 분류해 보았다. 발신 주체, 발신 장면, 상황별, 언어의식, 조사방법, 이미지, 교육, 다문화사회 등과 같이 언어경관 연구 중에 나왔던 개념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더 많은 언어경관의 패러다임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새로운 어프로치로서 다양한 언어경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향후 앞서 언급한 언어경관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마이크로(Micro)적 언어경관 연구를 진행하고 싶다.

참고문헌

- 강혜선, 「언어학습 자료로서 언어경관의 활용」, 『미래영어영문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 金順任, 「言語景觀における禁止表現に関する日韓對照研究」, 『일본어학연구』 30, 한국일본어학회, 2011.
- 김정현, 「언어경관에 보이는 화용에 관한 연구 -간판과 게시판을 중심으로-」, 『일본근대학연구』 55, 한국일본근대학회, 2017.
- 부경대학교 인문한국플러스 사업단 편, 『동북아 해역과 인문학』, 소명출판, 2020.
- 량빈, 「언어경관 ‘백두산/장백산’의 사용 양상과 사회적 요인과의 상관성」, 『우리말글』 75, 우리말글학회, 2017.
- 조은영, 「大邱広城市の観光地に見られる言語景觀について-都心循環コースと近代文化路地の表記を中心に-」, 『일본문화연구』 64, 동아시아일본학회, 2017.
- 송지성·최성호, 「도쿄메트로의 정보안내체계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디자인문화학회지』 23(1), 한국디자인문화학회, 2017.
- 양민호, 「日本と韓國の言語景觀に関する事例研究-公共施設のトイレとゴミ箱の表記について」, 『일본어문학』 44, 한국일본어문학회, 2010.

- 梁敏鎬, 「日本の道路標識のパターンから見る言語景観研究」, 『일본어학연구』 35, 한국일본어학회, 2012.
- 양민호, 「한국과 일본의 언어경관 자료를 통해서 살펴본 언어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일본언어문화』 26, 한국일본언어문화학회, 2013.
- 양민호,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현재와 향후 모델에 대한 연구」, 『일본학』 40, 동국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5.
- 이가연, 「개항장 부산 일본 거류지의 소비공간과 소비문화」, 『항도부산』 39, 부산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20.
- 이순형, 「大学の通常の日本語授業におけるPBL型言語景観調査の導入と学習者評価」, 『일본어교육연구』 48, 한국일본어교육학회, 2019.
- 井上史雄, 「経済言語学からみた言語景観-過去と現在」, 『日本の言語景観』, 三元社, 2009.
- 井上史雄, 『経済言語学論考』, 明治書院, 2011.
- 彭国躍, 「上海の都市形成期における言語景観-歴史社会言語学の事例研究」, 『神奈川大学言語研究』 40, 神奈川大学, 2018.
- Backhaus, Peter, ed., *Linguistic landscapes: A comparative study of urban multilingualism in Tokyo*, Multilingual Matters: 136, 2007.
- Ben-Rafael, Eliezer, et al. "Linguistic landscape as symbolic construction of the public space: The case of Israel",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3(1), 2006.
- Huebner, Thom. "Bangkok's linguistic landscapes: Environmental print, codemixing and language change",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lingualism*, 3(1), 2006.
- Hult, Francis., *Language ecology and linguistic landscape analysis*, 2009.
- Landry, Rodrigue, and Richard Y. Bourhis. "Linguistic landscape and ethnolinguistic vitality: An empirical study", *Journal of language and social psychology*, 16(1), 1997.
- Lanza, Elizabeth, and Hirut Woldemariam, "Language policy and globalization in a regional capital of Ethiopia", *Linguistic landscape: Expanding the scenery*, 2009.
- Yang, Min-Ho, and Joon-Hwan Kim, "A study on the scope and methodology of language inscription in Northeast Asian Sea Region of the 4th industrial age", *Indian Journal of Public Health Research & Development*, 9(8), 2018.
- <URL> 부산대학교(PNU) 로컬리티 아카이브 <http://bpa.localityarchives.org>

要旨

한일 언어경관 연구의 新패러다임에 관한 고찰

- 역사사회언어학적 사례를 통하여 -

양민호(부경대)

수많은 언어경관 연구가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언어경관에 대한 개론적 설명도 부족하다. 또한 언어경관 연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 등에 대한 길잡이 역할을 해 주는 연구 논문은 더욱 빈약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언어경관 사례를 소개하였고, 현재까지 진행된 연구를 토대로 새로운 언어경관 패러다임에 대하여 분류하였다. 그 결과 다음처럼 정리해 볼 수 있다.

역사사회언어학적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의 부산과 해방 이후의 부산의 언어경관은 언어, 문자, 내용, 문자 배열 등에서 상상을 뛰어 넘는 다양성을 지니고 있었다. 한 장의 사진에는 일제강점기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삶의 모습이 포착되어 통시적인 언어경관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다음으로 기존의 언어경관 연구를 새로운 패러다임을 분류하였다. 발신 주체, 발신 장면, 상황별, 언어의식, 조사방법, 이미지, 교육, 다문화사회 등과 같이 언어경관 연구 중에 나왔던 개념을 활용하여 정리하였다. 이외에도 더 많은 언어경관의 패러다임이 존재하겠지만,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어프로치로서 다양한 언어경관 연구에 접근할 수 있다는 길라잡이 역할을 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싶다.

주제어: 언어경관, 역사사회언어학, 패러다임, 부산, 일본어, 일제강점기

ABSTRACT

**A Study on the New Paradigm of the Language
Landscape between Korea and Japan:
Through Historical Socio-linguistics Examples**

Yang, Min-ho (Pukyong National Univ.)

Numerous language landscape studies are under way. However, there is a lack of introductory explanations about the language landscape. In addition, studies that serve as a guide to the direction of language landscape research are poor. Therefore, this paper introduced the case of language landscape from the perspective of historical socio-linguistics. And based on the research that has been conducted so far, we have classified the new language landscape paradigm. It can be arranged as follows. From a historical socio-linguistics standpoint, I looked at the language landscape of Busan and Busan after liberation of Japanese colonial era. As a result, there was an diversity in language, text, content, and character arrangement. One photo shows the lives of ordinary people living in Japanese colonial era. Based on this, it is possible to study the language landscape. Next, existing language landscape studies were categorized into new paradigms. It was organized using concepts that emerged during language landscape research, such as the sender, the sending scene, context, language consciousness, method of survey, image, education, multi-cultural society, etc. In addition, there are more paradigms of language landscape. However, this study has enabled a new approach. It is meaningful to serve as a guide to future language landscape studies.

Key words : Language Landscape, Historical Socio-linguistics, Paradigm, Busan, Japanese, Japanese colonial era.

접수일(2020.7.26.) 심사일(2020.8.10) 게재확정일(2020.8.17)